

민주 “대장동 의혹은 국힘·법조계이트”

‘곽상도 아들 50억’ 대가성 추궁 “특검 주장은 시간 끌기용” 비판

더불어민주당은 28일 대장동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이 자살골을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누워서 짐을 뺀 격이다. 파면 팔수록 야당 인사와 핵심 세력의 비리만 드러난다. 국민의힘발(發) 법조 게이트”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탈당한 곽상도 의원 아들이 수령한 ‘50억 퇴직금’에 대해 “민정수석이었던 아버지에게 준 뇌물로 보는 게 국민 상식”이라며 “이를 두고 산재위로금이라는 것은 국민 기만이다. 뻔한 거짓말에 분노가 치민다”고 말했다. 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겨냥해 “언제 곽 의원

아들이 50억원을 받았는지 알았느냐. 몰랐으면 허수아비고 알았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압박했다.

한준호 원내대변인도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고 곽 의원은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라며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화두를 띄운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의 대가성도 집중 추궁했다. 정청래 의원은 TBS 라디오에서 “자본주의 사회에는 공짜가 없다. 뭔가 역할을 했을 것”이라며 “화천대유 관련자들이 다 그쪽 동네 사람들이고 냄새가 그쪽에서 나고 있는데 이걸 덮어치기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대리의 직위여 어떻게 50억원 상당의 퇴직금을 받았는지, 대가성이

없었다면 사회 통념상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의 특검 주장에 대해선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의원은 “뒤가 구리니까 자꾸 시간 끌기 하려고 특검하자는 것”이라며 “지금 경찰·검찰에서 수사 잘하고 있는데 다른 걸 주장하는 게 오히려 수사 방해”라고 꼬집었다. 장경태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다치 특검이 바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은 수사 중단을 의미하고 국정조사는 수사 방해를 의미한다”고 했다.

곽 의원 아들의 의혹이 불거진 이후 대대적인 반격에 나선 이재명 캠프도 공세를 이어갔다. 캠프의 박찬대 수석대변인은 MBC 라디오에 나와 “대장동 건을 국민의힘 쪽에서 터뜨리지 않았다면 오히려 조용히 넘어갈 수 있던 은밀한 거래였다”며 “국민의힘 쪽에서 자살골을 넣은 것”이라고 비꼬았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오른쪽), 전용기 의원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문관에서 '무소속 곽상도 의원 아들의 화천대유 50억 퇴직금 논란'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언론중재법 개정안 상정 하루 더 연기

여야 원내대표 회동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오는 29일로 하루 더 늦춰졌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오후 진행된 본회의에서는 언론중재법을 제외한 다른 안건을 먼저 올려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가 재차 추가 논의를 이어가는 것을 두고 협상 진척 상황에 대해 각자 당내 의견을 수렴, 추진을 받기 위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아직 언론중재법에 대해 여야가 단일한 수정안을 마련하는 데에 이르지 못했다”며 “내일까지 단일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29일이 언론법 처리의 ‘데드라인’이라는 질문에 “오늘 의원총회에서 논의하겠다는”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도 “합의 노력을 계속 기울였지만, 아직 최종 타결에는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황 자체가 간단하지 않다. 매우 복잡하다”며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민의당 지역위원장 모집

국민의당이 전국 지역위원장을 모집하며 독자 조직 정비에 나섰다. 안철수 대표의 대선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을 통한 야권 대통합은 한 발 더 멀어지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12일까지 국회의원 선거 단위인 전국 214개 지역구에서 지역위원장을 공모할 계획이다. 당 관계자는 28일 “대선을 앞둔 시점에 조직을 정비하기 위한 자연스러운 절차”라며 “공당으로서 기반을 다지고 후보도 내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와 별도로 오는 30일 최고위에서 당 대선 기획단 출범도 논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국감 브리핑

“호남권, 최근 5년간 R&D사업비 전국 최하위”

조오섭 국회의원

R&D 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충청권에만 과도하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R&D 예산지원과 인센티브 제공 등 개선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국회의원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토교통 연구개발 R&D사업비는 2017년(3984억원), 2018년(4401억원), 2019년(4517억원), 2020년(5012억원), 2021년(5890억원) 등 총2조3804억원에 달한다.

이 가운데 서울(5445억원·22.9%), 경기(8584억원·36.1%), 인천(978억원·4.1%) 등 수도권에만 5년간 총1조5007억원(63%)이 지원됐다. 또 수도권과 인접한 대전(3321억원·14%), 충북(584억원·2.5%), 충남(436억원·1.8%) 등 대전·충청권은 4341억원(18.3%)이 지원됐다.

반면, 광주(209억원·0.9%), 전남(332억원·



1.4%), 전북(253억원·1.1%) 등 호남권은 총794억원(3.3%)에 그쳤다. 이는 수도권에 비해 19분의 1수준이고, 대전·충청권에 비교하면 5분의 1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광주는 2017년 28억원(0.7%), 2018년 35억원(0.8%), 2019년 46억원(1%), 2020년 44억원(0.9%), 2021년 56억원(1%) 규모로 5년 연속 제주 출산에 이어 꼴지 수준인 15등을 기록했다.

조오섭 의원은 “호남권은 국가 대형연구시설이 단 한 곳도 없고 연구개발 투자예산 또한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지난해 다목적방사광가속기 유치에도 실패했던 아픈 경험이 있다”며 “R&D 연구개발사업이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에만 의존하는 악순환을 막고 수도권과 경쟁가능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한 지방의 R&D예산 지원과 사업선정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국가균형발전 기여 ‘고향세법’ 본회의 통과

이개호 국회의원 발의

고향 발전을 위해 세금을 낼 수 있는 ‘고향세법’이 제정된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 국회의원이 제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고향사랑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고향세법’으로 불리는 이 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접수된 기부금은 주민복지 증진 등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 용도로만 사용하게 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궁극적으로는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법이 시행되면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통해 애郷심을 고취하고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증대시키는 데 상당한 효과를 얻을 전망이다.



이 법에 따른 개인 기부액 상한은 연간 500만 원이며 광역, 기초자치체 모두 고향세를 모집,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공무원을 동원한 강압적 모금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고향세법은 대통령령 등 하위법령 정비 및 후속 작업을 거쳐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개호 의원은 “우리나라는 대도시와 지방간의 경제, 사회적 격차가 심각하고, 경제활동 인구의 대도시 집중으로 지자체간 세수 격차도 심화되고 있어 지방소멸 위기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면서 “우리 농어촌 지역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향사랑기부금법 통과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보완하고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단초가 마련된 만큼, 농어촌 지역과 지방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광록 기자 kroh@

국민의힘 경선 4강 토론회 다음달 11일 호남서 스타트

국민의힘은 28일 대선후보 경선 2차 컷오프(예비경선) 후 지역 순회, 1대1 맞수 토론회로 진행되는 대선후보 본경선 토론회 일정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여의도 중앙당 사에서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연주·신인규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 달 8일 2차 컷오프 결과가 나온 뒤 매주 월·수요일은 지역을 돌면서 토론회를 하

로 했다. 매주 금요일은 1대1 맞수토론회를 진행한다. 지역별 토론회는 다음 달 11일 광주·전남·전북에서 시작한다. 호남을 첫 일정으로 정한 데는 “국민의힘이 호남에 다가가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내포했다”고 신 부대변인이 전했다. 지역별 일정은 13일 제주, 18일 부산·울산·경남, 20일 대구·경북, 25일 대전·세종·충남, 27일 강원, 31일 서울·인천·경기로 마무리된다. /연합뉴스

상가매매 (상무지구)

1) 40평(전용) **2억5천**(용1억)
보1천 월100

2) 60평(전용) **4억5천**(용3억)
보2천 월200

3) 140평(분양) 시세 **9억**
매가 **7억**(용 4억)
월수익 280만(보4천)

(사무실 리모델링, 바, 유흥, 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

010-6670-9800

장성 토지(매매 분양)

광주에서 20분(6M도로접)

장성댐(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대출가능)

[전원주택, 물류창고, 주말농장, 별장, 투자적합]

010-6670-9800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201210-중-116877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한번쯤 생각해 보세요!

- 허리, 엉덩이, 다리까지 아프고 저리며 통증이 있다면... **허리디스크?**
- 목을 돌려서 어깨가 아프다... **목디스크?**
-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고, 무릎이 자주 붓는다면... **퇴행성 관절염?**
- 팔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 어려워진다... **회전근개파열?**

든든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 가능!